

데님 소재와 조각보 모티프를 활용한 생활한복 디자인

이시현 · 이연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석사 ·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Living Hanbok design using denim material and Korean patchwork 'Jogakbo' motif

Sihyun Lee · Younhee Lee[†]

Mast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2019. 1. 27 접수; 2019. 2. 17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various directions of living hanbok and proposed the living hanbok design that integrated the tradition and the contemporary, as well as the past and present with denim material that represents the youth culture by while using the motif of Korean Jogakbo. For the research method, the data on living hanbok, denim, and Jogakbo were surveyed to develop and produce a living hanbok design. The development of a living hanbok design emphasized the meaning of longing for an accumulation of good fortune, by using the concept of 'wishing for fortune' including the symbolic images of denim and Jogakbo. The productio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Jogakbo motif consisted of patterns yearning for harmony, great fortune, longevity, and many children, and the living hanbok design integrated with the denim material symbolized the convergence of the past and present and the harmony of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The study could verify that the living hanbok design was recreated in a contemporary sense to be used everyday by expressing contemporary senses in a traditional image. Second, leftover fabric pieces and recycled materials that can be abandoned by the material market were used for denim. This study could also develop the living hanbok design as a sustainable design through upcycling, an important social trend, putting an emphasis on carrying out socio-ethical responsibilities. Third, denim Jogakbo work, which is connected by small pieces of denim material, used to be a difficult and labor intensive handicraft, but it could be proposed as a new high value-added fashion and generate contemporary living hanbok with a new image.

Key Words: living Hanbok(생활한복), denim(데님), Jogakbo(조각보)

[†]Corresponding author ; Younhee Lee
Tel. 82-10-5224 9278
E-mail : yiyhee@hanyang.ac.kr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8)
이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I. 서론

K-Drama로 시작하여 K-Pop으로 연결된 한류문화의 인기는 K-Beauty와 K-Fashion 등으로 이어져 세계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복식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2015년 샤넬의 크루즈 컬렉션에서도 오방색, 조각보, 한복 등 한국적인 요소들을 재해석한 패션을 선보였으며 세계에 한복을 다시 한번 알리고 한복의 현대화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임승은, 2015).

최근에는 한복을 생활 속에서 즐기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복을 입고 활동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는 문화 현상이 나타났다. 한복을 착용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궁에 입장시키는 문화 재청의 개방적인 태도와 함께 궁과 궁 가까운 주변에서 한복을 입은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지고 왔으며,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 때 입던 전통한복이 캐주얼한 패션으로 10~20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생활한복이 주는 전통적 느낌과 재미가 개인의 취향에도 부합하면서 나들이 복장으로도 즐기며 주변에게도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개개인의 독특한 취향과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박수현 (2017. 3. 29).

이와 같이 생활한복은 기성세대와 신세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으며 생활한복 관련 연구들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생활한복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생활한복 형성 및 배경에 대한 연구(안명숙 외 1998; 정혜경, 2010), 생활한복의 특징 및 변천에 대한 연구(김미진 외 2005), 생활한복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 연구(박영선, 2003; 최예빈 외 2016)가 있다. 또한 생활한복 디자인 개발(박영선, 2005; 유관순, 2012; 최선미 양숙향, 2007) 및 문화상품개발에 대한 연구(이미란 외, 2016; 이주원, 2002)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복 열풍의 트렌드에 맞춰 청년 문화를 대표하는 데님 소재와 우리나라 전통 조각보 이미지를 활용하여 전통과 현대 과거와 현대를 융합한 개념의 생활한복 디자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데님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여 조각보 모티프에 적용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업사이클 활용의 의미를 결합한 디자인으로 전개하고자 하며 생활한복의 다양한 디자인 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생활한복, 데님, 조각보와 관련된 문헌 자료와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다. 현재까지의 생활한복 개념을 정리하기 위하여 일간지 등 생활한복 기사를 수집하였고, 생활한복이 등장하게 된 배경 및 현황을 알아보았다. 데님소재 및 전통 모티브 조각보에 대한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상징적 의미 등을 조사하고 생활한복 디자인에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데님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조각보 패턴 및 이미지를 활용한 여성용 생활한복 디자인을 4벌을 전개, 제작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생활한복의 정의 및 변화

한복은 조선 시대 말기 개화기에 서양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일상복으로 간소화되기 시작했다. 활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즉, 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실용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박영선, 2005). 1950년대 서구문화가 유입되고 정부에서 한복 개량화를 시작하면서 길이가 길어진 저고리와 짧은 통치마가 유행하고 나일론도 한복 소재로 도입되었다(김미영, 2013). 전통적인 한복에서 변형된 한복은 다양한 개량한복 운동으로 변화가 시작됐고 정착됐다. 1960년 말까지 일상에서 착용하였으며 '개량한복' <그림 1>으로 불렸다(박영선, 2005). 그러나 서양복식이 점차 일상복으로 자리를 잡자 1970년대부터 한복 착용이 점차 줄어들었다(황의숙, 2009).

1980년대에 들어서서 한복의 개량화로 등장한 '개량한복'이라는 용어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자, 겨레 옷, 생활 옷, 우리 옷, 변형한복, 현대한복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으나, 전통한복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편리함과 기능에 중점을 둔 형태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생활한복'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정혜경, 2010). 두 용어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개량한복'은 전통한복에서 변형된 스타일로 서구화



<그림 1> 과거의 개량한복들
출처: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17. 1. 27

를 지향했다는 것이고 ‘생활한복’은 전통성 회복을 주장하며 현대화를 지향했다는 점이다(이미란 외 2016; 정혜경, 2010). 1980년대 중반에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기능성과 편리성을 중요시 한 생활한복이 등장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야 다양한 디자인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우리 전통 옷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생활한복’이라는 이름이 정착되었다(박영선, 2003; 정혜경, 2010). 1996년 문화체육부에서 기획한 ‘한복 입는 날’ 행사를 시작으로(이상은, 2000), 각종 한복 패션쇼가 열리고 전통한복을 개선해 편하고 실용성 있는 ‘질경이’, ‘여럿이 함께’ 등의 생활한복 전문 브랜드가 증가했다(금기숙 외, 2002). 이 시기에 예식용 한복은 더욱 화려하게 디자인 되었고 일상생활용 한복은 고름과 대님을 대신하여 단추가 사용되었으며 세탁에 용이하도록 면직물이 사용되고 실용적인 스타일로 차별화되었다.

생활한복은 1990년대 전통한복을 현대 생활에 맞게 변화를 준 용어이며, 개량 한복과는 발생 배경부터 차별되었고, 한국 전통을 유지하며 기능과 실용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발전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편리하도록 만든 생활한복의 의미는 크다(금기숙, 2012). 전통한복의 단점을 보완하고 현대적 소재, 디자인으로 변화로 젊은 층의 생활한복 선호도가 높아지며 한복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입을 수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다(박영선, 2005).

2. 데님의 정의 및 특성 상징적 의미

데님(denim)의 기원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serge de Nimes’ 라는 프랑스어 표현을 줄여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지는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17세기부터 생산된 견사 짜끼기와 모직물로 만든 천이다. 데님이라는 단어는 18세기 말 바-랑그도크지방서 생산됐고 영국으로 수출된 린넨과 면의 복합 천을 가리킨다. 19세기 초 데님은 인디고로 염색된 튼튼한 면직물의 일종인 이천들이 광부, 노동자, 노예들의 옷을 만드는데 사용됐다. 진이라는 단어는 ‘제네바’(De Genes)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영어 단어의 ‘genoese’를 발음 기호대로 적은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Levi Strauss)가 사용하던 천막용 천, 방수포 용천은 옛날 제노바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직물 중 한 종류로 처음에는 린넨과 면을 섞은 제네바의 천으로써, 16세기부터 선박의 돛이나 선원들 바지 등 모든 종류의 천막용천, 방수포용 천을 제조하는데 쓰여졌다(김정미, 2014).

데님은 원단이 두꺼워 완벽한 염색을 할 수 없었으며, 이런 문제점이 오히려 진바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데님은 착용자와 더불어 색이 변하며 낡아지는 것이 마치 살아 있는 재료처럼 보였으며, 염료의 발달로 인디고로 어떤 천이든 색이 오래가고 고르게 염색할 수 있게 되어 진 바지를 만드는 회사들은 옛날의 약간 물 빠진 듯 한 색조를 되찾기 위해 일부러 바지 색을 연하게 표백하고 물을 빼는 작업을 해야 했다(Michel Pastoureau, 1998).

데님의 시작은 청바지(blue Jean)로 불린 노동자 계급의 작업복으로, 질기고 튼튼한 장점 때문에 노동자들이 즐겨 착용하였다. 특히 미국 서부의 금 채굴업자, 농업 개척자, 철도공사 작업원 등 노동자를 중심으로 실용성과 기능성을 갖춘 작업복으로 착용되며 그들의 삶과 의지를 표현하게 되었다(이인영, 김수경, 2006, 이경희 외, 2006).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미국에서 젠더와 계

층의 경계를 허물며 미국 평등주의를 표상하는 상징이 되어 미국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나 대공황기에 수요가 감소하자 의류회사들이 중산층에게 ‘개척자’ 이미지를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노동자 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서도 선호하는 패션 아이템이 되었기 때문이다(최원형, 2017. 7. 27).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청바지가 패션의 민주주의를 상징한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노동자를 위한 작업복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평등’, ‘자유’를 상징하며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의미이다(김민정, 채금석, 2002). 1950년대에 들어 노동자의 작업복 이미지에서 벗어나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위한 패션아이템으로 착용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에 유행한 ‘위엄한 질주’, ‘이유 없는 반항’ 등의 영화에서 반항적인 이미지의 주연배우들이 청바지를 착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 세대에게는 과거 노동복의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아이템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드리지 못하며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젊은 세대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청바지 유행을 받아들였다(김정미, 2014).

1960년대에는 청바지가 더욱 유행하면서 젊은 이들의 복식으로 확고하게 안착되고, 청년 문화의

상징과 사회성이 부각되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 시기에는 베트남 반전운동과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사회 체제에 대한 반항으로 청바지를 착용하였다. 이 시기의 청바지는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젊은 세대의 반문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자유, 사랑, 평화를 의미한다(이정주, 김미정, 1997).

1970년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며 대표적인 유니섹스 의상으로 여성에게도 받아들여졌다. 유니섹스의 의미 전달을 위하여 남성용 스타일의 청바지를 착용하기도 했다. 전통 성 역할에 대한 반항과 여성의 지위 상승으로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 분화가 허물어지며 성 평등과 실용성의 추구를 상징하는 패션 아이템이 되었다. 청년들은 기득권 계층과 사회체제에 대한 저항과 반항을 보여주기 위하여 낡거나 손상된 스타일의 청바지를 착용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켈빈 클라인에서 고급화된 디자이너 청바지를 선보이며 청바지의 지위를 상승시켰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 청바지가 가지고 있던 저항의 상징성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이미숙, 염혜정, 2008).

1980년대의 청바지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상품

<표 1> 청바지의 변천 과정

시대	변천과정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문화의 상징과 사회성이 부각되는 아이콘으로 정착. ·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사회체제에 대한 반항. · 젊은 세대의 자유, 사랑, 평화 상징.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역할에 대한 저항과 표현. · 유니섹스 대표적 의상. · 성 평등, 실용성을 추구하는 패션 아이템. · 1970년대 중반하위문화의 저항과 반항. · 1970년대 후반 켈빈 클라인의 고급화 청바지 등장으로 청바지의 저항적 상징 약화.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이너 브랜드의 증가. · 착용자의 경제력, 취향을 표현하는 아이템.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노소, 국가, 민족, 계급 상관없는 전 세계적 대중화된 아이템. · 착용자의 개성과 패션성을 지닌 아이템.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핑크, 빈티지, 로맨틱 등 다양한 스타일을 복합적 표현. · 주류패션으로 정착. · 톱 디자이너의 개성표현, 패션의 고급화, 개성화에 영향을 줌. · 다양한 워싱 기법의 발달. · 자수, 비즈, 유리 등 기발한 아이디어 적용. · 프리미엄 진, 럭셔리 브랜드 진, 세계 유명 콜렉션으로 등장.

이 증가하며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과시적이거나 착용하는 사람의 취향을 상징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며 남녀노소, 국가, 민족, 계급 등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즐겨 착용하며 현대 패션에서 중요한 아이템이 되었다. 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화된 스타일로 보편화되어 차별화된 스타일과 디자인으로 착용자의 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2000년대에는 데님이 21세기의 새로운 의식을 표현되며, 데님 웨어의 영역에 제한 없이 핑크, 빈티지, 로맨틱 등 다양한 스타일을 복합적으로 표현하면서 안티패션이 아닌 주류패션이 되었다. 톱디자이너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데님 소재를 사용하는 디자인이 많아지면서 데님은 패션의 고급화와 개성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고가 데님 브랜드들에 의해 럭셔리 열풍의 메인 아이템이 되었다. 프리미엄 진이 등장하면서 럭셔리 브랜드 진이 유행하기 시작하며 세계 유명 컬렉션에서 다뤄지면서 현재 다시 데님이 패션의 주요 아이템으로 떠올랐다(조아라 외, 2011). 시대별 청바지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 조각보의 의미와 기법

1) 조각보의 상징적 의미

조각보는 바느질하다가 남은 자투리 천 조각이나 오래되어 해진 옷, 이불 등에서 성한 조각을 잘라 모아 두었다가 연결하여 만든 재활용 생활용품이다. 천이 귀했던 조선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못하고 아끼려는 조상들의 알뜰한 절약 정신에서 만들어졌다. 조각 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크기와 형태가 다른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반듯하게 기하학적인 형태로 연결하기보다는 조각천이 가진 형태를 그대로 살리면서 연결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구성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김지연, 2009). 이러한 조각보는 지속가능 디자인이나 업사이클 디자인의 좋은 전통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그 의미와 심미적 기능을 가진다.

조각과 조각을 이어 만드는 조각보는 조각 같은 생명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며, 복을 비는 염원이 복을 쌓아둔다는 의미를 상징하기도 한다. 정성을 들여 조각을 이어 조각보를 만들면서 여인들은 가족의 복을 기원하였다. 그래서 조각보의 상징성과 의미는 그 시대의 여인들이 주술적인 의미를 강조하여 복락을 염원하는 것이다. 정성을 많이 들여 만들면 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조각보는 필요에 의해 만든 경우보다 제작 자체의 즐거움 또는 여가 선용 차원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았다(김지연, 2009). 딸의 혼례를 앞두고 만드는 혼례용 조각보는 자수를 더해서 더욱 아름답고 화려하도록 정성을 다한다. 딸이 시집가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기원을 담는 것이다. 이러한 기원의 마음은 조각보를 만드는데 들인 정성 외에 자수를 놓는 과정에도 담겨 있다. 장수(長壽)와 복(福), 화목과 다남(多男) 등 길상(吉祥)의 의미가 담긴 문양을 선택하고 정성으로 수를 놓는 시간을 통하여 가족의 행복을 기원한다(정용순,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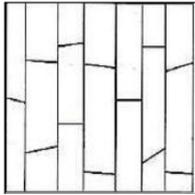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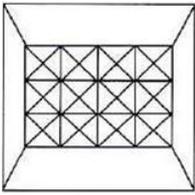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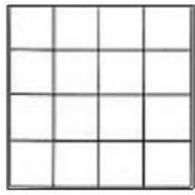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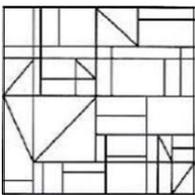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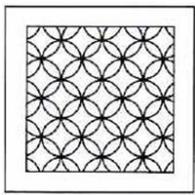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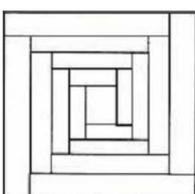
2) 조각보의 기법

조각보는 대부분 19세기 초에서 20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들로 수직형, 삼각형, 사각형, 자유형, 여의주문형, 바람개비형 등 기하학적인 패턴 구성을 이루고 있다. 다양한 결합의 조각천이 가지는 구성 형태의 변화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수직형 조각보는 수직형 모양을 한 형태이며, 크고 작은 띠 모양의 정방형이 수직으로 반복되며 크고 작은 사각형의 모양이 반복된다. 삼각형은 질서 정연하게 결합된 형식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모여 사선으로 배열된 정사각형의 형태이다. 삼각형의 구성은 색과 면을 달리한 사선을 이루며, 삼각형 두 개가 모여 사선이 되고 네 개가 모여 다이아몬드형 구성을 이루기도 한다. 사각형은 바둑판형 구성의 반복에서 오는 단순함을 색상 또는 문양의 대비로 변화시키는 일정한 형태의 조각천 형태이다. 자유형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규칙성 없이 배치하여 자유롭게 조합된 형식이다. 여의주문형 조각보는 같은 크기의 원들이 같은 크기로 겹친 분이 네 군데가 되도록 겹쳐있는 형태이며 구성이 정교하여 입체적인 조형미가 표현된다. 바람개비형 조각보는 중앙의 네모꼴 모양을 한 형태이며 평면적이면서 깊은 공간을 주며 바람개비 날개와 비슷한 방향을 주고 면배

치의 재미와 변화를 준다(허동화, 2006).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 사용되는 조각보와 패치 워프는 선, 면의구성의 조화가 현대인의 복식 심리를 만족시키며 독창적 디자인 개발을 하는 방

법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조말희, 2014). 조각보 이미지 패턴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조각보 모티브 종류

종류	사례	패턴	내용
수직형	 모시조각보, 19세기		크고 작은 띠 모양의 정방형이 수직으로 반복되는 형태.
삼각형	 옷보, 19세기		이등변 삼각형이 정연하게 모여 사선으로 배열된 정사각형.
사각형	 창문문상보, 19세기		일정한 크기의 조각천의 형태, 바둑판, 계단형.
자유형	 자유형조각보, 19세기		패턴을 형성하지 않고 크고 작은 수십 개의 정방형, 네모, 세모, 마름모꼴 조각들이 자유롭게 결합된 형태.
여의주문형	 여의주문 상보, 19세기		일정한 부분의 원형이 좌우상하로 일정하게 배열되거나 겹쳐 있는 형태.
바람개비형	 회자문 조각보 19세기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날개가 돌아간 듯한 방향으로 배열된 형태.

출처: 아름다운 우리 전통 보자기 만들기, 2009. pp.22-26.

출처: 허동화, 우리가 알아야한 규방문화, 2006, p.58.

Ⅲ. 작품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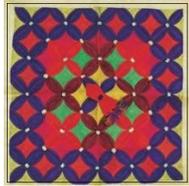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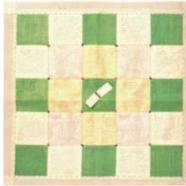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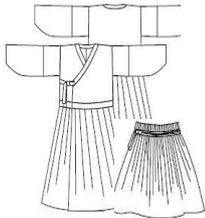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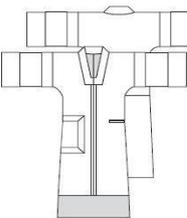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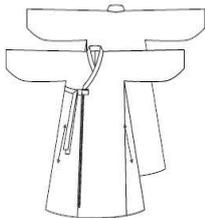
1. 작품제작 의도

생활한복의 역사는 한복의 역사와 더불어 지난 과거부터 지금까지 발전 되고 진화되어서 오랜 시간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함께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한복이다. 전통의 재인식과 전통문화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세계화로 발전된 한복의 미래에 대한 재조명이 현실화 되고 있다. 다양한 디자인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전통 한복과 생활한복, 퓨전 한복이 전통의 내적 의미를 내포하면서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편리하고 알맞게 변화시킨 현대적인 생활한복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데님 소재와 우리나라 전통 조각보

의 패턴을 중첩시켜 한국적 이미지를 활용한 새로운 여성 생활한복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작품 제작 의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데님 소재를 활용한 생활 한복 디자인 전개로, 생활 한복에 활동성과 기능성 젊음을 상징한 디자인으로 전개한다. 둘째, 데님 소재의 다양한 염색 효과와 워싱 효과를 활용하여 경쾌하며 명확한 구성의 미를 가진 우리나라 전통 조각보 문양을 활용한 조각보 패턴의 원단을 제작하여 생활한복에 적용한다. 조각보는 사각형, 삼각형, 여의주문형, 자유형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유로운 면 구성의 다양한 형태를 활용한다. 셋째, 생활한복의 디자인 전개는 전통 남성복 철릭의 형태를 활용한 원피스 디자인, 활옷의 형태를 응용한 코트, 배자와 전통 남성 바지 형태인 사폭 바지의 투피스, 두루마기 형 코트 등의 여성복 4

<표 3> 데님과 조각보 활용 생활한복 ‘복(福)을 기원하다’ 작품 제작 구성

	작품 1	작품 2	작품 3	작품 4
아이템	철릭형 원피스 +스커트	활옷 활용 코트	여성복 배자 상의 여성복 사폭 바지	두루마기형 코트
조각보 모티프	 여의주문형 상보	 삼각형 조각보	 창문문상보	 자유형조각보
기법	다양한 데님 조각 원단들과 버려지는 스와치를 이어 붙여 작업 여의 주문형 조각보 제작	조각보의 기하학적 패턴에 워싱 데님, 직접 탈색한 데님, 재활용 데님을 이용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의상 표현	워싱 데님과 짙은 워싱 데님을 길게 잘라 원단 조각을 위아래 엮어서 만든 사각형 패턴 장식용 퍼 사용	여러 종류의 데님 자투리 원단과 스와치를 활용한 자유형 조각보 패턴
데님 조각보패턴				
평면 도식화				

별을 제작하였다<표 3>.

본 연구의 여성 생활 한복 디자인의 테마는 ‘복(福)을 기원하다’로 여인들이 가족의 복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를 담아 복을 비는 염원이 복을 쌓아둔다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복식인 생활한복에 서양의 대중적 소재인 데님소재를 적용한 조각보 활용 생활한복 디자인은 옛것과 현대, 동양과 서양, 부조화의 조화, 복고와 시크, 등의 다양한 의미를 담은 융합적 디자인으로 전개하였다.

생활한복은 전통을 계승시키는 훌륭한 매개체로 활용되는 동시에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가진 패션으로 시장에서 그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조상들이 옷을 만들다 남은 천들을 조각보를 만들었 듯 본 연구에서도 재활용 데님의상이나, 유행이 지나 입지 않는 소재의 의상들을 활용한 자투리 원단과 스와치를 재활용하여 조각보의 개념인 ‘잇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회적 실천의 부분적 수행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2. 작품제작

1) 작품 1

작품 1은 19세기의 여의주문형 조각보를 활용한 철릭 원피스 디자인이다. “뜻한대로 이룬다.”라는 여의주문이 꽃처럼 화려한 패턴으로 일정한 부분의 원형이 좌우상하로 일정하게 배열되거나 겹쳐 있는 형태의 조각보이다(허동화, 2006). 여의주가 겹쳐진 것같이 보이기도 하며, 네 개의 꽃잎이 꽃처럼 보이기도 한 패턴으로 공간 밖 층을 치게 꾸며 부조 같은 효과가 있는 독특한 매

력이 있는 조각보이다.

철릭을 모티프로 제작한 의도는 조선 시대 임금이나 문, 무 백관의 융복이며 사대부자제들도 행동에 제약이 덜하며 편리해서 착용하였던 융복이다. 왕과 일반 서민계층에 상관없이 착용된 철릭으로 다양하게 시대적 변화와 용도에 알맞게 표현되었다. 형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전 되면서 진화 되어 변형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조민숙 외, 2013). 철릭을 원피스를 재해석한 분리할 수 있는 소매 부분을 절개해 데님을 다른 소재로 변화를 주었고 치마도 주름을 넣어 옛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현대적인 세련된 철릭 원피스로 만들어 전통미를 부각시켰다. 깃, 고름 등의 디테일에 포인트를 주어 디자인하였다.

작품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자투리 데님 조각 천과 데님 재활용한 스와치를 모은 데님 조각 천 각각을 원형으로 오린 후 조각 천들을 각모서리 마다 접어서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원형으로 만들어 접어놓은 조각 천들을 가지런하게 일렬로 하나씩 봉제하여 조각 천 안쪽에 데님 화이트 천을 사각으로 오려서 한 장씩 밑에다 넣어서 꽃잎이 잘 보이도록 자수를 넣어 제작하였다<그림 2>. 철릭을 활용해 만든 치마로 주름을 넣어 안정감을 주었으며 그 위에 현대식 느낌의 연출이 가능하게 탈부착 할 수 있는 허리 밴드로 포인트를 주어 제작하였다<그림 3>. 철릭의 소매 부분 느낌이 나도록 다른 데님 소재를 매치해 flap 느낌이 나게 연출하였으며 고름을 두 개의 끈으로 만들어 캐주얼하게 앞부분에 디자인 하였다<그림 4>.



<그림 2> 데님 조각을 활용한 여의주문형 조각보, 등근 조각으로 자른 후 사각형 모양으로 이어 붙여 흰색 데님을 덧대어 완성



<그림 3> 작품 1 데님 조각보 활용 철릭 원피스



<그림 4> 작품 1 철릭 원피스의 앞 디테일

2) 작품 2

작품 2는 활옷을 응용한 디자인으로 생활한

복으로 재해석한 두루마기를 변형한 코트와 원피스를 디자인 전개하고, 제작하였다. 조선시대 공주나 왕비가 혼례 때 착용하던 예복으로 어깨 앞길 아래, 소매, 뒷길 등 장수와 길상을 염원하는 무늬를 넣어 화려하게 수놓은 활옷은 조선 말기에는 일반 서민들에게도 혼례복으로 허용되어 대중화 된 활옷이다(안명숙 (2006).

생활한복에 기하학적 선의 아름다운 형태미를 살리고 기능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을 표현하였다. 이등변 삼각형은 각 삼각형에 다른 색채로 대비를 주어 포인트를 주었다. 4개의 삼각형이 모여 반복적인 형태의 사각형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규칙적으로 대칭을 주어 면구성과 균형을 주었다. 삼각형이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려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율동적인 색상으로 디자인 하였다. 반복적인 삼각형 패턴의 구성에 중첩 이미지의 겹치기로 사각형 조합을 만들어 이어지는 구성 방식을 통해 조각 천이



<그림 5> 삼각형이 모여 반복적 사각형 구성, 규칙적인 대칭의 균형을 준 삼각형 조각보



<그림 6> 작품 2 삼각형 모티브의 조각보를 활용한 데님 생활한복

옷이 되고 전체를 부분으로 포괄하는 조형 원리를 나타내어 데님 소재를 활용한 생활 한복을 디자인, 제작하였다.

작품 2 데님 조각보 활용 활옷의 구체적인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삼각형 조각보 원단을 만들기 위하여 데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원단들을 활용하여 삼각형 모양으로 모아 잘라서 삼각형 원단을 겹쳐서 작업하였다. 삼각형 끼리 봉제한 데님 조각 원단을 또 한 번 반대로 삼각형을 봉제해 사각형 패턴을 만들고, 사각형으로 만든 삼각형 조각 패턴을 한줄 씩 가지런히 정리하였다<그림 5>. 현대적으로 재해석

만든 활옷 앞, 왼쪽 옆, 오른쪽 옆, 뒤 사진이다. 주머니를 언밸런스하게 디자인하여 왼쪽에는 입술 주머니를 달고 오른쪽에는 주머니 모양을 본뜬 아웃포켓을 만들어 가운데 삼각형 작은 조각 천들을 이어 붙였다. 앞판을 뒤판 보다 짧게 만들어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게 강조하였으며, 앞판과 뒤판을 봉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고 캐주얼 하게 입을 수 있게 제작하였다. 소매 안쪽을 자연스럽게 굴려 착용감을 편안하게 하였으며 기본원형 보다 품을 조금 넓게 만들어 활동하기 편하게 하였다<그림 6>.

3) 작품 3

작품 3은 정사각형 조각들 하나 두 개가 모여 정사각형 모양을 질서 있게 붙여 만든 창문문의 조각보 패턴을 활용하여 배자 상의와 사폭 바지로 디자인하였다. 어린아이의 배자를 여성 캐주얼 조끼로 재해석하여 제작하였다. 배자는 조선시대 유물 중 가장 빠른 계절의상이며 유물이다. 계절별로 입을 수 있으며 방한용 털배자와 여름용 배자를 춘추전용으로 응용해서 입을 수 있다. 앞길과 뒷길이 달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현대 복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김웰계, 2011). 저고리 위에 입는 옷으로 앞길이 뒷길보다 짧고 양 옆선을 트였는데 현대식으로 재해석하여 끈을 없애고 앞 선에 고리를 달아 캐주얼하게 디자인하였다. 바지는 사폭바지의 남자 바지로 예전부터 착용되어 오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데님 워싱 원단을 길게 자른 후 사각형 조각보 원단을 작업하기 위하여 자른 원단을 가로 세로로 올 역기로 만들어 사각형 조각보 패턴을 제작하였다<그림 7>. 배자는 저고리 위에 입는 옷으로 앞길이 뒷길보다 짧고 양 옆선을 트였는데 현대식으로 재해석하여 끈을 없애고 앞 선에 고리를 달아 캐주얼하게 디자인하였다. 앞여밈은 고름이 아닌 가죽고리로 연결하여 심플하게 만들었으며 넥라인 깃 위에 파란 털을 달아 포인트를 주었다. 양 옆선에 트임을 주어 남아배자와 여성입기 편하고 심플하고



<그림 7> 데님 워싱 원단을 길게 잘라 겹쳐 사각형 조각보 원단 작업



<그림 8> 작품 3, 창문문 사각형 조각보 이미지를 활용한 생활한복

실용성 있게 제작하였다. 사폭바지는 발목에 대님을 끈으로 묶는 것을 현대식 고리로 만들어 캐주얼한 바지로 제작하였다. 큰사폭과 작은사폭에 다른 천을 추가하였다. 큰사폭 바지에 다른 데님 원단으로 배색하여 캐릭터 있게 만들었으며 뒷면 작은사폭에 워싱 데님 원단으로 배색하여 연출하였으며 모피 장식을 목둘레에 덧대어 현대적 감성을 더하였다<그림 8>.



<그림 9> 자유형 조각보 문양을 활용한 데님 조각보



<그림 10> 작품 4, 자유형 조각보 문양을 활용한 데님 생활한복

4) 작품 4

작품 4는 여성 두루마기를 활용한 생활한복 코트 디자인이다. 두루마기는 복식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포로, 왕과 평민까지 다양하게 일반적으로 착용한 보편적인 의복이다. 끈은 깃에 사방이 막혀 있는 두루마기는 기본포의 형태의 삶이 깊어지고 옷고름과 무가 첨가되어 현재 두루마기가 되었다(정옥임, 2010). 방한용 또는 외출용 예복으로

착용하였으며 겹옷으로 입는 의상이다.

본 작품은 조각보의 잇기, 붙이기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민족의 정과 나눔을 두루마기에 담아 현대식 코트 형태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작품 4에서는 여밈에 지퍼를 활용하여 추위를 막는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자유형의 모든 조각들은 중첩 또는 조각보 특성의 잇기를 이용한 결합이며 규칙이 없는 듯 규칙있게 어긋나지 않는 조화가 보이는 잇기의 결합이

다. 작품 1, 2, 3의 제작 후 남은 자투리 데님 조각들과 스와치 조각들을 재활용하였다. 구성에서 나타나는 색채는 작고 크게 구도를 맞춰가면서 이어 주는 과정의 결과물이다<그림 9>.

두루마기를 현대식 코트처럼 변형 제작하여 두루마기의 무거운 이미지를 캐주얼하고 가볍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화이트 모피로 목둘레에 포인트를 주었으며 심플한 가슴 부분에 고름을 끈으로 변형한 디테일을 넣어 변화를 주었다. 편안하게 오픈형 지퍼를 달아 데님의 자유스러움을 두루마기에 접목시켜 캐주얼하게 변화를 주었다<그림 10>.

IV. 결 론

본 연구는 데님 소재와 우리나라 전통 조각보의 모티프 패턴을 활용하여 한국적 이미지의 여성 생활한복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고찰로 생활한복과 데님, 조각보에 대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담은 생활한복 디자인을 전개 제작하고자 하였다. 청년 문화의 상징인 데님은 활동성과 기능성, 젊음을 상징하는 소재로, 이러한 데님 소재의 다양한 염색 효과와 워싱 효과를 활용하여 경쾌하며 명확한 구성의 미를 가진 우리나라 전통 조각보 문양을 활용한 조각보 패턴의 원단을 제작하여 생활한복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생활한복의 디자인은 데님과 조각보의 상징적 이미지를 포함한 ‘복(福)을 기원하다’의 테마로, 여인들이 가족의 복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를 담아 복을 비는 염원이 복을 쌓아둔다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작품은 전통 남성복 철릭의 형태를 활용한 원피스, 활옷의 형태를 응용한 코트, 배자와 전통 남성 바지 형태인 사복바지의 디자인을 활용한 투피스, 두루마기 형 코트 등의 여성복 4점을 제작하였다.

작품 제작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각보의 문양들은 다남, 화복, 다복, 장수 등 기원하는 문양들로 데님 소재와 결합된 생활한복 디자인은 과거와 현재의 결합, 동서양 문화의 조화를 상징하였으며 전통 이미지에 현대적 감각을 표현하면서 생활 속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데님 소재와 우리나라 전통 조각보 이미지의 조합은 새로운 소재, 패턴의 개발의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데님 소재의 염색과 워싱 처리에 의한 다양한 색감과 문양들은 조각보 패턴과 현대적인 감각의 조합은 물론 데님 소재의 실용성을 더하여 재구성되었다. 셋째, 데님 소재는 소재 시장에서 버려질 수 있는 다양한 스와치의 자투리 원단 및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였으며 최근 중요한 트렌드 키워드인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업 사이클 디자인으로 전통적이며 창의적 디자인을 전개할 수 있었다. 넷째, 데님 소재의 작은 조각 원단을 이어서 완성하는 데님 조각보 작업은 수공예 작업으로 쉽지 않았으나, 새로운 고부가가치 패션으로서 제안될 수 있었으며 현대적인 새로운 이미지의 생활한복을 제작 할 수 있었다. 데님 조각보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질서가 없는 것 같으나, 그 안에 계획된 질서를 가지고 데님 소재의 다양한 염색 워싱 가공에서 느껴지는 강약을 주었으며 배열 안의 구성 양식들로 하여금 현대적인 조형미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생활한복에 데님 소재와 전통 조각보를 활용한 본 연구에서는 생활한복의 디자인의 새로운 전개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거 여성들의 문화였던 조각보 이어붙이기는 가족들의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문화는 물론, 자투리를 활용한 업 사이클 트렌드와 만남으로 사회적 패션으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이 지속되어 생활한복의 일상화는 물론 K-패션으로 세계화 확대에 기여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금기숙. (2012). 생활한복.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17. 10. 10, 자료출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76717
- 김미영. (2013). 현대 여성한복에 나타난 퓨전 스타일의 표현적 특성 연구. 한복문화. 16(2), 123-139.
- 김미진, 김혜영, 조우현. (2005). 근대이후 여성 생

- 활한복의 특징 및 변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2), 137-158.
- 김민정, 채금석. (2002). 진즈 패션의 상징성 연구: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를 중심으로. 복식. 52(7), 155-166.
- 김웰계. (2011). 전통 배자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1), 105-115.
- 김정미. (2014). 현대 데님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과 미적 특성 연구: 2001년 이후 여성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6(1), 27-39.
- 김지연. (2009). 조선시대 조각보의 색채와 면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일러스트레이션포럼. 19(19), 27-36.
- 김현희. (2009). 아름다운 우리 전통 보자기 만들기, 서울: 미진사
- 임승은. (2015). 거리로 나온 한복. 보그코리아. 검색일 2017. 11. 27, 자료출처 www.vogue.co.kr/2015/08/07/거리로-나온-한복
- 박수현. (2017. 3. 29). 봄날 맞은 한복업계... '고루한 명절옷'에서 '우아한 일상복'으로 탈바꿈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17. 10. 12. 자료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9/2017032901688.html
- 박영선. (2003). 생활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5(1), 19-25.
- 박영선. (2005). 생활한복 이미지를 활용한 캐주얼 웨어 디자인 개발. 한복문화. 55(1), 25-42.
- 안명숙. (2006). 우리 옷 이야기. 서울: 예학사.
- 안명숙, 김은정, 양숙향. (1998). 현대 생활한복 형성의 배경과 방향. 한국복식학회지. 39, 91-98.
- 엄경희, 최유미. (2011). 조선시대 조각보문양을 활용한 홈 인테리어 제품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2), 345-357.
- 유관순. (2012). 생활한복 상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학회. 15(1), 69-83
- 이경희. (2006). 복식의 아이템. 서울: 경춘사.
- 이미란, 김혜경, 송혜련. (2016). 생활한복의 문화 관광 상품화를 위한 패션디자인 개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6(3), 15-27.
- 이미숙, 엄혜정. (2008). 진즈의 패션화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4(2), 319-330.
- 이상은. (2000). 생활한복 제작업체의 현황조사 및 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1), 97-112.
- 이인영, 김수경. (2006). Jeans의 커뮤니케이션 변화, 1. 생활과학연구논집. 26(1), 45-65
- 이주원. (2002). 생활한복의 문화상품화를 위한 방안. 한복문화학회지, 5(4), 87-95
- 정옥임. (2010). 한복두루마기 원형제도법 개발을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71(81), 71-81.
- 정용순. (2016). 전통조각보를 응용한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조형디자인연구, 19(4), 9-28
- 정혜경. (2010). 생활한복의 형성 배경과 그 내용적 특성에 대한 고찰. 한국복식학회지. 51(2), 27-42.
- 정혜경. (2010). 현대 한복: 1984-2008. 경남: 경남대학교 출판부.
- 조말희. (2014). 조각보에 나타난 패치워크에 관한 연구. 패션과 니트, 12(1), 40-50.
- 조민숙, 이미석, 김정호. (2013). 철릭을 응용한 원피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63(5), 51-60.
- 조아라, 박명자, 이연희. (2011). 현대 여성 데님 패션의 코디네이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3(2), 133-146.
- 최선미, 양숙향. (2007). 조각보 이미지를 이용한 여성 생활한복 디자인 개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9(2), 145-150.
- 최예빈, 김지은, 이현화. (2016). 생활한복의 이미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분석 연구: 2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1), 411-422.
- 최원형. (2017. 7. 27). 어디에나 있지만 하나뿐인 청바지. 한겨레신문. 자료검색일 2017. 10. 16, 자료출처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04625.html#csidxd48bb1ba3b17512988ff_aa836b65944
- 황의숙. (2009). 디자이너 이리자의 작품세계에 나타난 한복 디자인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복문화. 12(2), 43-60.
- 허동화. (2006), 우리가 알아야한 규방문화, 서울: 현암사
- Michel Pastoureau. (1998). 블루, 색의 역사: 성모 마리아에서 리바이스까지. 서울: 한길아트.